

# 전남교육청, 미래교육박람회 참여국과 교류 네트워크 만든다

### 미국·캐나다·베트남·몽골 등 22개국 해외 교육리더 초청 기관·명소 소개

전남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베트남·몽골 등 22개 참여국과 지속적인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축된 네트워크로 해외 국가의 교육 리더들을 전남의 22개 시·군으로 초청해 교육기관과 명소를 소개한다.

2025년 강진에 설립할 가칭 국제직업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해외 유학생 유치, 지역 중심 미래교육 발전에 관한 논의도 추진한다.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박람회 콘퍼런스나 국제교육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국가와 1대 1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지원청 팀장과 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준비위원회 협의회를 가졌다. 준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전담 실무진을 꾸리고 협업시스템을 마련,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8일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지원청 팀장과 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준비위원회 협의회가 열렸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앞서 지난 21일 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 참여한 1차 준비위원회 협의회에서 박람회 주요 세션과 운영·안전 관리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총체적인 분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박람회 추진단은 준비위원회와 함께 오는 5월부터 여수에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세계와 전남의 모든 지역이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남 모든 교육기관의 힘을 모아달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각 나라와 네트워크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대 노수연 동문·정주호 학생 '국세청 청년인턴' 2명 합격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회계세무학과 노수연 동문(2월 졸업·오른쪽)과 4학년 정주호 학생이 '2024년 국세청 청년인턴'에 최종 합격했다.

국세청 청년인턴제도는 2023년 처음 시행돼 올해부터는 인턴 근무 지역이 종전 지역 세무서에서 분청과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광역시까지 확대됨에 따라 2024년 응시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노수연 동문(광주세무서)과 정주호(서광주세무서) 학생은 광주지역 4개 세무서 채용 합격자 8명에 포함돼 5월 8일부터 6개월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각종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민원 상담·안내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를 담당하게 된다.

노수연 동문은 "이번 채용에 있어 회계, 세무, 법

률 등 전공 학과 우대요건과 광주지방국세청 세무도우미 재능기부 활동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노수연 학생은 재학 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정주호 학생 역시 한국세무사회장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 (재)광주 효성 청소년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회계세무학과는 광주지역 회계 및 세무, 법률 전공 교육 전문학과로 지속적인 광주지방국세청 세무도우미 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김지웅(3학년) 학생이 세무도우미 재능기부와 국세행정 우수 개선의견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윤영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학과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과 교수진의 광주지방



국세청 및 지역 관할 세무서의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2년 연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김진혁)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

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 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

게 되면서 ▲에너지-AI 연계 프로젝트 과정 운영 횟수 확대 ▲실습 중심 커리큘럼 확대 등 산업체 수요특화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진혁 센터장은 "소재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노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협업모델 운영의 안정화와 더불어 소재 산업의 맞춤형 교육체계를 운영하여 소재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수능문제 이의심사 '사교육 연관성'도 본다

### 교육부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출제위원도 무작위 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 직전 출제된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그간 문항과 정답의 '오류'만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수능 문제 이의심사는 '사교육 연관성'도 들여다본다.

추천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던 출제위원은 '상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사교육 편박' 없도록...사설 모의고사 살살이 훑는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분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통상 수능 출제위원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40일 안팎의 합숙을 진행하는데, 수능이 11월 중

순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 수능 출제진 '무작위'로 선정해 공정성 높인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독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정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 동강대 한국어학당 봄 학기 입학식...베트남 학생 22명 참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어학당을 개소하고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원장 허숙)은 최근 교내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어학당 봄 학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유학의 필수조건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겨울학기 나뉜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강대는 한국어학당 신입생 선발을 위해 지난해 베트남 현지에서 면접을 실시했다.

앞서 베트남 응에 안 무역관광대학교(Nghe An Trading and Tourism College), 한베산업기술대학교(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College) 등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이날 한국어학당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동강대 학칙을 준수하고 품위와 긍지를 지닌 연수생이 되겠다 ▲한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분과에 진학해 우수 인재로 거듭나겠다 ▲유학생, 다문화 특성대학으로 새로운 K-컬처의 선도자가 되겠다

이외 허숙 국제교류원장과 동강대 총학생회 한권(응급구조과 3년)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24학년도 미디어콘텐츠과 신입생인 무등난타 임재만 명의 재능기부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동강대는 한국어학당 입학식이 끝난 뒤 베트남 성공유학원(대표 판딩코아)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